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강의 건의 및
등록금 일부 환불 요구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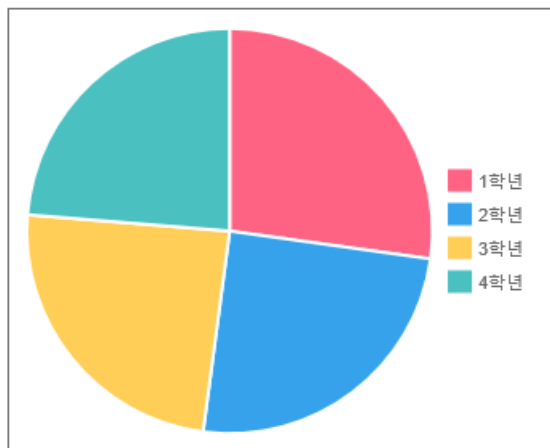
신한대학교

[신한대학교 학생회장 일동]

3,795명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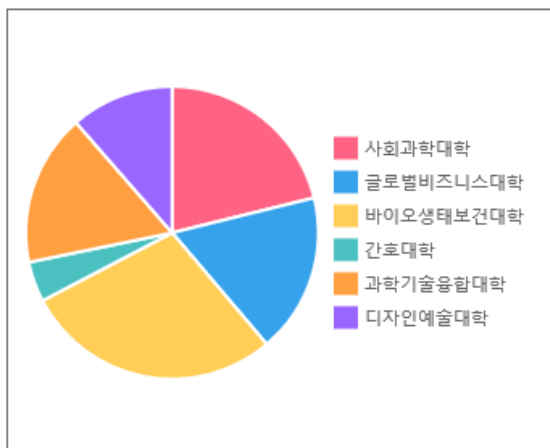
요약

1. 귀하의 학년은 무엇입니까?



☒ ☐	응답	응답수
☒ ☐	1학년	1032 27.2%
☒ ☐	2학년	945 24.9%
☒ ☐	3학년	918 24.2%
☒ ☐	4학년	900 2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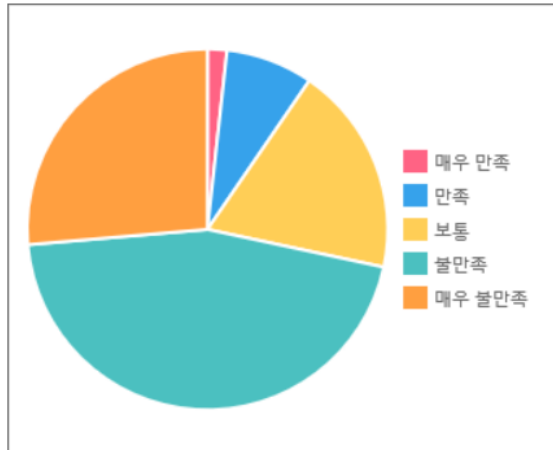
2. 귀하의 단과대학은 무엇입니까?



☒ ☐	응답	응답수
☒ ☐	사회과학대학	803 21.2%
☒ ☐	글로벌비즈니스대학	669 17.6%
☒ ☐	바이오생태보건대학	1083 28.5%
☒ ☐	간호대학	169 4.5%
☒ ☐	과학기술융합대학	638 16.8%
☒ ☐	디자인예술대학	433 1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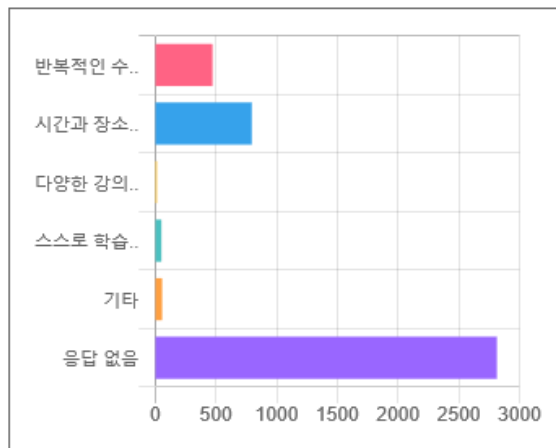
비대면 강의 만족도 조사

3. 코로나 사태로 인한 비대면 강의에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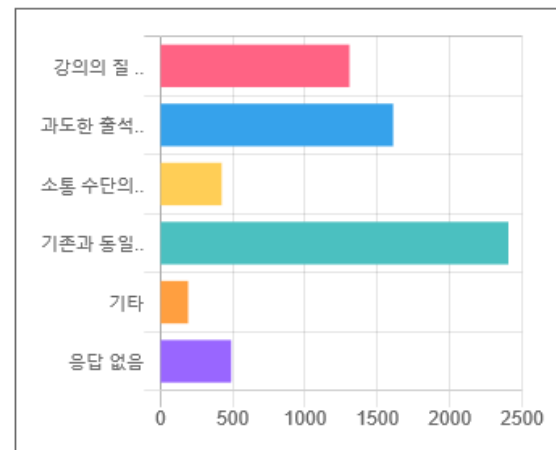
응답	응답수
매우 만족	66 1.7%
만족	297 7.8%
보통	713 18.8%
불만족	1719 45.3%
매우 불만족	1000 26.4%

4. 비대면 강의의 만족 사유는 무엇입니까?



응답	응답수
반복적인 수강 가능	473 12.5%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음	796 21%
다양한 강의 자료 제공	16 0.4%
스스로 학습하는 능력 향상	52 1.4%
기타	58 1.5%
응답 없음	2814 74.2%

5. 비대면 강의의 불만족 사유는 무엇입니까?



응답	응답수
강의의 질 저하	1307 34.4%
과도한 출석 과제 부여	1609 42.4%
소통 수단의 미흡	424 11.2%
기존과 동일한 등록금	2405 63.4%
기타	192 5.1%
응답 없음	490 12.9%

비대면 강의에 대한 학우분들의 의견

8개 과목 중 8개의 과목이 레포트를 요구하고 1/2 이상의 과목은 전문적인 진짜 과제로 성적 산출하듯 레포트를 요구한다. 피곤하고 수업도 제대로 진행안하고 책이나 ppt를 읽기만 하는데 동영상도 그럴 거면 만들지 말고 자료만 줘라 혼자서 공부하는 거랑 똑같다. 그렇다고 궁금증이 생기면 바로바로 질문할 수도 없고 메일로 보내도 피드백도 없고 사이버 캠퍼스는 렉이 엄청 걸리고 빨리 감기 및 느리게 재생하기도 없고 화질도 떨어지고 목소리도 안 들려서 스피커는 엄청 울리게 되고 그렇다고 비대면 수업 연장 및 중간고사, 중간과제 평가 같은 공지는 또 느리게 해줘서 항상 뒤늦게 준비하게 된다. 성적 산출방식은 아직도 정하고 있고 수업마다 과제 제출일도 다르고 수업을 언제까지 들어야한다. 이런 것도 다 다르고 이게 무슨 4~5백만원대 수업 인지 모르겠다. 그렇다고 학생복지도 좋은 것도 아니고 책을 사고 싶어도 서점에 팔지도 않고 서점은 불친절하고. 또 PPT를 대면수업때 준다면 끝까지 안주는 교수님도 있다. 수업 듣고 싶지가 않다 학습욕구가 없어 그냥 책을 반복해서 혼자서 공부한다. 장점이 있다면 동영상이 사이버캠퍼스에 남아 계속들을 수 있고 날을 정하고 나눠 들을 수 있다는 거 하나 밖에 없고 코로나 예방에 신경 쓸 수 있다 밖에 없다.

강의의 질은 교수님도 처음이기때문에 이해합니다. 하지만 과제가 너무 많은 거 같습니다. 출석 용이라고 하면서 시간 오래 걸리는 과제들을 내주시고 과제가 한 두개가 아니라 5개,6개 이상을 해야 합니다. 일주일에 강의 듣고 과제도 하고 또 따로 공부도 해야 하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일주일에 3번 이상은 밤새는 것 같습니다. 과제라도 줄여주세요.

강의의 질은 떨어지고 출석과제는 강의에 비해 너무 과도합니다. 또한 강의의 질과 시간은 현저히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등록금이 동일한 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과제가 너무 많고, 화질이 떨어져서 집중이 잘 안됨, 학교 내에서 강의를 들어보지 못해서 강의의 질이 얼마나 떨어진 건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소통도 되지 않고 화질, 음질 등 때문에 집중이 덜 되는 느낌을 받음

강의의 질이 저하되고 출석체크를 목적으로 한 과제로 인해 오히려 개인시간이 더 없다. 공지 또한 교수님들 개개인이 느리고 불친절한 공지는 혼란을 초래, 과제를 제출해도 출석체크를 기간에 준수하여 안 하는 일부 교수님들 때문에 불안하다. 점수와 관련 있는 만큼 준수하여 출석체크를 해주었으면 좋겠다.

대면 수업으로 해야 할 강의들을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교수님, 동기들과 소통도 불가능하고 강의의 질이 저하되어 많이 답답합니다.

시간은 줄이고 등록금은 그대로 가는 게 불만. 다른 학교처럼 실시간도 아니고 3시간짜리 수업 50분으로 줄여 놓고 그대로 받는 건 아니라고 생각함

등록금 환불에 대해서 문제가 있고, 간혹 ppt 또는 책을 그대로 읊으시는 교수님이 계시는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갑작스러운 비대면 강의로 교수님들이 녹화하는데도 불편하고 학교 서버 용량이 너무 적어서 접속자 수가 물리면 먹통이 되어서 수업도 못 듣고, 과제는 한분한분 적게 내주시지만 과목이 많은 사람은 그게 쌓이면 너무 많아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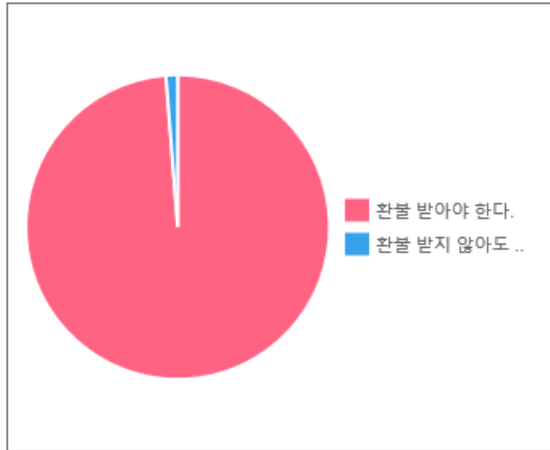
비대면 강의 너무 힘들어요. 강의의 질도 떨어지고 과제도 많고, 과제하다가 하루가 다 갑니다.

4학년이라 취준하는데 학교에서 이러니 힘듭니다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강의라 어느정도 강의수준을 고려하더라도 출석과제가 너무 과도하게 많고 서버문제로 인한 스트레스도 많았고 교수님들도 영상으로 수업하시느라 수업의 질이 떨어진 감이 있음
정말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해주시는 교수님들도 계시지만 정말 실망스러운 정도로 강의를 하시는 교수님들도 계셔서 강의를 듣는 학생 입장에서 많이 실망스럽습니다. 실제로 몇시간 짜리 수업에 비해 강의 시간은 너무 짧고 비대면 강의가 시작한 뒤로 과제로 출석체크를 하는 바람에 학생들의 부담이 더욱 커졌습니다.
교수님 모든 분들께선 공부의 목적(한 주제에 대한 깊은 고민과 이해, 사고능력향상 목적 등)으로 수업내용에 대한 과제를 내주시는 의도가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 과제에 대한 부담을 안고 있을 뿐 아니라 과제로 인해 전반적인 과목에 대한 공부는 뒤로 하고 그 과목에서 주어진 부분에서만 집중을 하게됩니다. 물론 선택과 집중은 좋은 공부방안입니다 그렇지만 모든 과목은 전반적인 내용을 알아가고 탐구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후 선택과 집중은 직접적인 과제(출석인증과제가 아닌 평가를 위한 과제)에서 이루어져야되는 것이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따라서 비대면수업의 연장으로 인해 학생들이 부담을 안고 오히려 그 과목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안을 보다 빠르게 제시하기를 기대합니다
과제로 출석을 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생이 강의 영상을 얼마나 보았는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체크해도 될 것 같습니다.
출석과제치고는 과하다. 교수님들이 과제 파일이나 교재, 자료 등 등록이 느리고 미흡하다. 소통이 불가능한 비대면 강의임에도 불구하고 수업을 일방적으로 과하게 진도를 나간다.
과제가 필요 없는 수업도 과제를 해야 하고 실기가 필요한 수업은 진도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한다.
시스템도 자주 오류 나고 교수님들은 학생들에게 설명해주고 이해시키는 수업이 아닌 일방적인 정보전달식으로 즉 그냥 책을 그대로 읽는다면 가 준비하신 피피티를 그대로 읽는다면 거의 수업을 1시간이상씩 하며 아무리 비대면 강의라 출석 인정을 위해서라지만 대면강의를 할 때보다 훨씬 많은 과제로 인해 부담이 됩니다
자유로운 시간에 강의 듣는 건 좋으나 소통의 부재와 출석용 과제를 하느라 일부 시간을 꽤나 소비합니다.
비대면 강의를 진행하는 것에 있어서는 학생과 교수진이 질병(코로나19)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지만 온라인으로 강의를 듣게 되면 집중도와 수업의 질이 떨어지는 점이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3-4시간의 전공 수업을 1-2시간으로 줄여서 강의를 올리게 되면 내용은 당연히 함축적인 내용으로 수업이 진행이 되고 학생은 즉각적인 피드백과 질문이 어려워 수업내용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학교 시설물을 이용하지 못하는데 동일한 등록금 또한 이해되지 않습니다.
2시간이론수업이 30분수업이 되고 3시간 실습수업이 30분수업이 되어 학습의 진전이 있나 싶습니다. 또한 영상의 질도 낮아 교수님의 말씀, 피피티 등 제대로 보이지도 않습니다

위의 조사결과와 학우분들의 의견을 반영한 비대면 강의 개선을 건의합니다.

등록금 일부 환불 의견 조사

7. 등록금 일부 환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답	응답수
환불 받아야 한다.	3748 98.8%
환불 받지 않아도 된다.	47 1.2%

환불 받아야 하는 이유

한 학기에 등록금은 15학점 ~ 21학점 기준이 됩니다. 학점에 따라 일주일 수업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비대면 수업을 하면서 수업시간은 반에서 그것보다 미치지 못하게 되면서 학점에 비례해서 등록금이 너무 터무니 없이 많습니다. 또한 실습이 있는 학과에 경우에는 등록금에 실습비용이 포함되어 있지만 현재 비대면강의로 실습을 안하고 있으므로 실습비는 돌려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불가피한 비대면 강의지만, 그로 인하여 절감되는 비용들을 반환하지 않으면 부당이익에 해당된다고 생각함. 예를들면 정부에서 어떤 공사나 용역을 진행하더라도, 인건비, 간접노무비(보험료 등)은 실제사용금액을 증빙하고 계약내역에서 차액이 생기는 부분은 사후에 정산하여 반환을 받음. 이는 인건비 책정이나, 인건비 지급에 있어 위탁기업이 해당금액에서 이익을 볼 수 없도록 만든 제도임. 따라서 등록금도 마찬가지로 생각함. 대학등록금이 대학시설이용금액, 미화유지금액, 장비이용금액, 교수의 강의 질 향상에 필요한 금액 등등이 산출되어있는 금액인데 등록금을 납부하고 당연히 누릴 수 있는 혜택들이 학생들에게 돌아가지 않는다면 일정 금액은 반환해야 한다고 생각함. 위 이유처럼 이러한 부분들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학교는 앞으로 대면하여 강의를 하더라도 최고의 강의질 유지 및 학업환경유지에 노력을 기울이지 않을 수 있음..

실습도 하는 학과인데 실습도 못합니다. 수업을 다시 듣지도 못하게 되어있는데 이렇게 하면 언제 실습을 배웁니까

수업의 질이 저하되고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며 많은 행사가 이루어지지 못했을 것이다 그에 따라 남는 예산을 측정하여 반환해야 한다

당연히 환불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내는 등록금에는 수업료와 학교 시설이용료(학교 전기세, 수도세, 보수비용, 학교 내 업체들과의 계약비용, 학교 셔틀버스이용료, 학교 청소관리비용 등)가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적 재난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질 낮은 인터넷강의로 수업을 듣는 것은 많은 개선이 필요하지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데 왜 등록금을 환불해주시지 않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학교측에서는 이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입 껍 닫고 있다가 날름 먹어버리려는지 어느 학교에서도 언급조차 없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어른들이 정말로 실망스럽습니다. 우리가 같은 수업료를 냈지만 수업의 질이 떨어지는 것은 국가적 재난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며 비대면 수업이 어느정도 장, 단점이 있어서 학교측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개선하면 어느정도 수업료에 대한 것은 납득이 가능하지만, 최소한 학교시설이용료는 돌려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대로 환불 받지 못하고 어물쩍 거리다가 넘어가면 쓰이지 못한 저 돈은 누군가에게 돌아갈 것이며, 그 과정에서 누군가는 이득을 취하게 될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학교측의 누군가가 그 돈을 사용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국가적 재난으로 모두가 힘들고 도와야 하는 시기라서 수업료도 학생들은 납득 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 누군가 우리 부모님이 내신 피뎌 어린 등록금으로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다면 강력한 법적 처벌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런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대면수업으로 받을 수 있는 것들을 비대면으로 받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실습과목도 실습이 중요한 건데 하지 못하는 등 전반적인 수업의 질이 저하돼서 등록금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업시간도 줄고 등록금을 다 받는 건 아니라고 생각함 학생들이 학교도 안 다니니 학교 운영비도 학기중에 비해 적을 거라고 생각도 든다

등록금의 일부는 학교관리비로 들어가겠지만, 강의실을 사용하는 금액이나 학과실습에 사용되는 자재의 금액은 들어가지도 않고, 적어도 30%~40%는 환불 받아야 한다고 생각

실습이 있는 수업은 실습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교수님과의 소통, 피드백이 없기 때문에 일부 환불 받아야 맞다고 생각한다.

등록금이라는 것이 학교를 위해 학교발전과 학생들, 교수들의 역량의 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돈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학교, 교수님들 모두 대면 수업보다 더 고생하시는 것은 알지만 학생들은 학교에 가지 않고 집에서 3시간,2시간 수업을 1시간도 채 되지 않는 강의와 그냥 피피티를 읽는 듯한 교수님들의 강의 방식, 학교에 가지 않기때문에 하지 않는 행사 및 지원, 한번쯤은 생각해볼 법도 했지만 이제서야 하는 설문조사로 인한 학생들의 불만스러운 감정과 대처가 빠르지 않은 학교로 인하여 생긴 학교에 대한 안좋은 시선, 인식이 생겨버렸기 때문에 40%~50% 정도는 돌려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신입생 OT, MT 등 학교 주요 행사들이 취소됐다.
2. 학생들이 학교를 가지 않으니 학교 관리비가 줄었을 것이다.
3. 교수님들의 강의 시간이 평균적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4. 온라인 강의도 수업의 일부일 수 있다. 그러나 애초에 긴급한 대책일 뿐 실질적인 수업으로 생각하지는 않고 그렇게 생각되지도 않는다. 특히 예체능 계열의 강의는 대면 수업이 중요한데, 온라인 강의 영상으로 대체하는 것은 매우 큰 불이익이 있다.

모든 학생들이 생각한 이유와 유사함.

1. 강의 질 저하 2. 소통의 부재(실시간 화상이 아닌 녹화 방식이므로 질의응답 등이 불가)
3. 서버 불안정으로 인한 수강의 어려움 및 혼선. 4. 학교 시설을 이용하지 않음으로써 등록금은 기존대로 내고, 수도세, 전기세, 실습도구 등은 사용하지 못함. 추후 대면 강의를 시작하더라도 원래 커리큘럼 상 3월부터 이용했어야 했지만 일절 이용하지 못했을 뿐더러 대면 강의 때까지의 학습 공백은 등록금 환불 외에는 보상받을 수 없다고 생각함. 5. 강의를 제 시간에 듣지 못하는 상황 발생. 일부 전공 교수님들 중엔 강의를 제 시간에 맞추어 올리지 않고, 현재 본 학생도 수강하는 전공 과목 5주차가 올라오지 않은 채 5주차가 지나감. 사전에 학교에서 및 교수님께서는 연락 및 공지는 없었음. 6. 학생들 간 경쟁력 저하. 비대면이므로 성적에 반영되는 모든 것에서 경쟁력이 떨어짐.

현재 비대면 강의로 교수님께 질문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며 심지어 국가고시를 치르는 과는 실습을 하여야 하는데 재료를 갖고 다뤄보지도 못했고 심지어 배워보지도 않았음

코로나 사태로 인해 확산을 방지하고자 비대면 강의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하지만 실습을 하지 못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록금은 그대로이고 강의의 질 또한 낮아질 수밖에 없는데 학교측은 자신들의 이익만 추구하려 하니 아주 불쾌하고 또 불만족스럽습니다 학교 또한 이익을 추구하는 것까지는 이해하겠지만 평소에도 과도한 등록금으로 불만이 많은 학교이거니와 실습과 기계설비의 비용명목으로 과학기술융합과는 등록금이 더 비싼데 이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으니 일정금액에 대한 환불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사태때문에 더 힘든 것은 마치 기업과도 같은 학교가 아니라 그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더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현명한 판단 부탁드립니다

비대면 수업으로 사이버강의로만 진행하였고, 휴강 한 강의도 있고, 학교의 시설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고 규정된 수업시간만큼 수업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학교 등록금에는 학교시설의 이용 비용(도서관, it학과의 경우 컴퓨터와 실습도구, 셔틀버스)이 포함되어 있으며 강의의 질 또한 대면 강의에 비해 한참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의 예로는 강의중의 질문 불가, 3 ~ 4시간짜리 수업이 30분~1시간의 수업시간으로 대체되는 것 등이 있습니다. 교수님과의 소통부재는 교수님 또한 인정하신 바가 있으며 교수님들 또한 출석 과제 검사와 학생들의 무수히 많은 질문 메일등을 받으며 굉장히 힘드시다고 들었습니다. 이에 부득이하게 대면 수업을 하지 못하는 이 상황으로는 등록금의 일부분 환불이 적절한 조치라 생각됩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입학식, 신입생OT, 학교 축제, 체육대회, 학교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등 많은 등록금을 내고 그만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기에 매우 불만족스럽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낸 등록금에는 실습 기자재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비용도 있습니다. 학교측에서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겠지만 학생들 또한 수업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100% 이전과 같은 등록금을 왜 내야하는지 의문이 들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구의 모 대학교에서는 교수님들의 급여를 일정부분 건어서 10, 20만원 학생들에게 지급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대학교 연구기금을 교수님들의 화상강의 역량 강화나 디지털 영상촬영이 가능하도록 교내시설을 갖춘다고 그 곳에 많은 돈을 투자한다고 하는데, 이 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몇 만원의 금액, 갖고있는 스마트폰으로도 충분히 영상촬영, 편집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기에 그런 곳에 몇억씩

투자하는 것은 돈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는 10, 20만원 위로금 주는 이런 포퓰리즘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실습 수업이 아예 진행되지 못한 것, 대학교의 비품을 이용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등록금을 반환받고 싶은 것입니다.

학교 시설을 학생들이 이용하지 않고 강의 시간이 최소 1/2로 감소했음에도 등록금이 같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이버강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에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알겠으나 그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학생들은 아무도 모릅니다. 이 부분에서는 학교측의 입장문이 필요합니다. 또한 코로나 사태로 인해 이번 학기를 등록한 중국인 유학생들의 수가 줄어들어 학교의 수입이 감소했더라도 이것은 학교 자체의 재정적인 면에서 조정하여 감당할 일이지 학생들의 학비로 충당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시급한 것은 신입생들의 입학금 환불입니다. 입학금 명목의 그 어떤 활동도 하지 않았으니 이는 환불 받아 마땅합니다.

시국이 시국인지라 인터넷 강의가 불가피하다는 점은 잘 압니다. 하지만 3시간이던 수업들을 1시간 이하로 진행되고, 실습 강의는 수업자체가 진행되지 않는 등 수업의 질이 면대면 수업보다 떨어진다는 점은 눈으로 보이는 사실이기 때문에 등록금을 일부 환불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희 학교의 등록금이 타대학에 비해 비싸다는 점에서 더더욱 그렇게 생각합니다. 등록금 안에는 제가 학생으로서 받을 수업에 대한 비용뿐만 아니라 학교 내 시설 이용에 대한 비용도 포함 되어있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측에서도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겠지만 저희가 손해 받는 상황에 대해서는 교육시설로써 이에 맞는 대처를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환불 받지 않아도 되는 이유
코로나로 인한 피해는 확실합니다. 강의실에서 이어질 수업이 집으로 바뀌었고 교내 도서관과 같은 편의 시설을 사용하기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익의 목적도 아니고 고의가 드러나는 목적도 아닙니다. 엄연히 코로나로 인한 지역사회 감염을 줄이기 위함 입니다. 비대면 수업으로 대학도 교수진도 학생도 모두 피해가 있는 상황이니 '환불 받지 않아도 된다.' 생각합니다.
수업을 듣는 것은 같기 때문.
LMS 온라인 학습시스템 구축에 따른 서버 비용 등이 추가적으로 발생하여서 지출 추가가 예상 되기 때문.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되는 과목들은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있어서 환불 받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아직도 진행되지 못한 실습 과목의 추후보강을 대면 강의 때 충분히 해주신다면 문제없을 듯 합니다.
천재 지변으로 인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등록금 환불대신 좀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가면 좋을 것 같다 생각함 전반적인 강의실 , 연구실을 개선한다던 지 학생들에게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거나 강사채용 등 좀더 좋은 쪽으로 쓸 수 있을 거라 생각함.
학교에 나가지 못한다는 것은 환불을 받아야겠지만 교수님들도 영상으로 수업을 해주시고 비대면 강의를 함으로써 장점도 있기 때문에 환불을 받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절차도 복잡할 것이며 차라리 개강 후 학생들에게 복지나 혜택을 많이 해주면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라의 경제적 위기도 존재하고, 지금은 모두가 힘들 때라 대학도 학생들의 마음을 존중할 필요가 있지만, 학생들도 환불요구 전에 대학의 입장도 먼저 알아야 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
코로나사태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이나 기업들이 많이 힘들어하는데 저희도 그 힘듦을 같이 감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더 좋은 곳에 써서 학교 시설이 더욱 발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연재해나 마찬가지로 이번사건으로 등록금 환불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대출받아서 등록금을 해결한 학생들에게는 복지 장학금 형식으로 조금 돌려주는 방식도 괜찮을 것 같아서 건의 합니다.
학습진도에 영향이 없는 것 같아서
교수님도 고생해서 강의를 올려주기 때문입니다.
학점은 받으니까 상관없습니다
모든 재학생들이 환불 받고 싶어하는 마음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미 여러가지 개인의 상황에 맞게 납부한 등록금은 현재 상황에서 등록금을 환불 받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가장학금과 교내장학금으로 등록금을 감면 받은 상태입니다. 만약 환불을 받아야하는 상황이 된다면 다시 학교에 환급해야 하는 부분이 생기는 건지 의문이 듭니다.

등록금 일부 환불에 대한 학우분들의 의견

물론 교수님들이 수업을 직접 준비하시는 과정도 등록금의 일부에 포함된다고 학교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학교에 직접 가서 도서관이나 강의실 등 학교 시설을 이용한 것도 아니고, 학교에 직접 나가서 듣는 수업보다는 확실히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무조건 환불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에 나가서 교수님들을 직접 대면함으로써 많은 정보와 피드백을 얻지도 못하는 상황이고, 원래 수업시간이 3시간이던 전공과목을 한 주에 1시간 밖에 듣지 못하게 되었는데 이를 400만원이나 내고서 듣고 있다는 게 너무 억울하고 솔직히 돈이 너무 아깝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금액이 아니더라도 등록금의 일부 금액은 환불 받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등록금 환불은 이루어져야 한다. 강의시간 단축과, 교수님의 실시간 피드백 불가, 수업에 집중이 안되는 건 물론 잡음이 심한 강의 영상이 올라와 소리를 끄고 화면만 보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내가 이런 수업 듣자고 이번 학기 등록금을 냈나, 이번 학기 휴학을 했어야 했나? 하는 생각까지 들었다. 일부 환불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하고 돌려주는 게 어렵다면 이번학기 학교를 다닌 학생에 한해 다음학기 등록금 일부를 삭감해주는 방법도 괜찮다.

그리고 중간고사의 시행 여부와 성적 관련 공지가 내려오지 않아 매우 답답하다. 지금 중간고사가 얼마나 남았다고 중간고사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대해 공지해주신 분은 아무도 없고, 당연히 성적 관련해 공지 해주시는 교수님도 아무도 없었다. 비대면 강의가 언제까지 이루어질지에 관한 공지는 물론 중간고사 (비대면 강의가 한학기 계속 이루어질 것이라면 기말고사도)와 성적에 관한 문제까지 빠른 피드백이 내려왔으면 좋겠다.

신한대학교가 다른 학교들에 비해 등록금이 비싼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어느학교든 똑같은 강의만 듣고 있습니다. 비싸게 등록금 내고 다른 학교와 같은 퀄리티, 혹은 더 낮은 퀄리티일 수 있구요. 퀄리티가 좋아져봤자 얼마나 좋아지겠습니까? 의사소통도 안되는 건 여전합니다. 현재, 조금이 아닌 벌써 5월을 향해 갑니다. 이미 반학기를 보낸 이상 5월 11일에 학교를 간다고 하면 적어도 20%-30%는 환불 받아야지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1학기 통으로 사이버 강의일 경우는 당연히 50%이상은 돌려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구요. 1학기 통으로 사이버 강의를 한다고 해도 100% 전액환불은 아닐 겁니다. 사이버 강의를 처음이라 이것저것 비용이 들겠지요. 그렇다면 환불하고 남은 돈은 어디로 쓰였는지 세세하게 신한대 학생들에게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환불 받은 금액이 마땅한 지, 등록금은 내는 학생으로서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시도하고 급하게 준비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이해한다. 하지만 기존에 수업하던 시간도 줄고 질도 낮아졌기 때문에 등록금 일부 환불은 의견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등록금이 싼 학교도 아니고 전국에 손 꼽힐 정도로 비싼 등록금을 내고 다니는데 이러한 비대면 수업이 길어질 수록 학생들이 금전적으로 입는 피해가 늘어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등록금에 맞는 수업과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데 당연히 환불을 해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열심히 가르치시는 교수님들과 또 지원해주시는 학교에 일단

감사합니다. 그러나 거의 400만원이나 괴는 등록금을 온라인 수업을 위해 쓰여진다는 것이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전액 환불이 아닌 일부만이라도 환불 받으면 좋겠습니다

못해도 30%는 환불해줘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환불 과정이 매우 복잡하고 힘들다면 다음학기 등록금 감면을 시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된다. 또한 등록금 뿐만 아니라 OT 및 입학식을 하지 못한 것에 있어 1학년들의 입학금도 같이 환불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교수님들께서도 녹화에 많은 애를 쓰고 계신다는 점, 교육부의 공문 때문에 원활한 업무가 이루어지지 않아 교직원분들께서도 많은 애를 쓰고 계신다는 점, 학교에 직접 출입하는 사람들을 검문으로 통제하려는 부분 등등 코로나 19로 인해 많은 분들의 노고에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서로 양보해야 한다는 마음우로 학교에 가지 못 하고 있지만 저희 학생들도 많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등록금 일부 환불만큼은 현시국의 예외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반드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꼭 추진해주십시오.

현재 언론과 국민의 소통을 보면 등록금 환불에 관련된 이야기가 많습니다. 물론 학교 측 입장은 돈을 돌려주게 되면 학교의 예산에 큰 차질이 생길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인격적으로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식적으로 되돌려 받아야하는 게 마땅하다 생각합니다. 이유를 굳이 찾자면 실습 없는 강의,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비대면 강의, 학교 시설 이용불가 등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학교 측은 환불 자체에 변명, 불가 등의 의견을 제시하면 안된다 생각합니다.

적정선의 환불이 이루어짐으로써 대학, 교수진, 학생 모두가 통합적으로 이해관계가 성립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됨

전액 환불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반액 혹은 3분의 1의 금액이라도 환불 바랍니다.

부모님이 피, 땀 흘려 번 돈입니다. 이렇게 허무하게 375만원이 날아가게 둘 수 없습니다

학기가 정상적으로 운영된다는 가정하에 등록금 일부 환불이 가능할 것 같다. 적어도 1학기분의 등록금은 환불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실습학부•과의 경우 실습비만 환불한다고 하면 비실습학부•과의 구분기준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비대면 강의를 실행한 기간으로 기준을 정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한다. 학생들이 등록금에 비해 수혜를 받지 못했다면 등록금을 환불해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학교측의 오류나 실수로 인해 학생들에게 피해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환불을 해주지 못할 이유는 되지 않는다. '1학기분의 등록금을 2 학기로 이월하여 더 나은 강의서비스를 제공한다.' 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사실상 불가능하다. 1년의 모든 과정을 미리 계산해서 지불하는 것이 등록금이라고 생각하는데 앞서 말한 방안은 효율적, 사실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학생들이 피해를 호소하는 지금 등록금 환불은 필수라고 생각한다.

액수는 상관없으나 학교 측에서 무언가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보여주는 성의에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등록금 일부 환불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량진 유명 학원을 가도 온라인강의와 대면 강의는 당연히 가격이 다릅니다. 더군다나 거기서 어느정도 대면강의를 찍는 수업이기 때문에 내가 궁금하거나 이해를 못한 부분을 거기서 질문을 할 수도 있고 이런 작은 소통이라도 이루어지지만 지금같은 수업은 교수님이 누구와도 소통하지 않는 상황이라 우리의 상황을 모르기도 하고 이메일로 연락을 해서 질문을 하면 된다고는 하지만 그런 것에는 한계가 있기도 하며 노량진도 다른 가격에 적당한 소통, 질문도 다 가능한데 우리학교는 현재 상황으로서는 그 정도

도 못하는데 등록금을 다 낸다는 것이 너무 말도 안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등록금 절반의 환불이 불가능하다면, 일부라도 반드시 학생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비대면 강의로 수업을 듣고는 있지만 강의의 퀄리티, 소통을 불편함, 많은 과제로 인해 매주 당황스러움을 겪는다. 등록금이라는 것이 단순한 수업료만 포함된 것은 아니다. 학교 시설 관리 및 유지비가 모두 포함된 것일 텐데 지금처럼 학교를 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그러한 비용까지 다 받는다는 것은 말이 되지않는다고 생각한다
등록금 일부 환불일 경우 70% 이상의 환불을 해야 한다. 학생들은 학교시설 이용하지 않으므로 관리비가 줄어들테고 우리는 대학교들 다니면서 어떤 이익도 받지 못했다. 또한 장학금 받고 다니는 학생도 장학금을 받지 않는 학생과 동일하게 등록금 환불을 받아야한다. 장학금을 다음 학기 감면으로 미룰 경우 그들이 다음에도 장학금을 받거나, 졸업한 겨우 등록금을 내는 것과 차이가 없다.
올해 안으로 군대나 불가피한 사정때문에 다음학기 등록금 감면 같은 건 그러한 학생들에겐 부당하게 느껴질 수 있는 처우일 겁니다. 등록금 환불이 맞는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학생들의 건강안전을 위하여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는 것은 올바른 대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만큼의 최소한의 금액은 환불 받고 싶은 학생들의 입장도 한번 고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학생들을 위해 고생해주시는 교직원분들과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등록금에는 학교내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수업들과, 실습들, 학교내 시설이용 등 굉장히 많은 부분이 포괄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비대면 강의가 이루어 지는 동안은 학생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온라인 강의 제공이 전부입니다. 실습관련 수업, 학교내 시설 이용 등 학생들이 누리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신입생들은 OT, 입학식 모두 진행하지 못하였구요. 학생들이 학교로부터 받은 시스템과 서비스가 한 두가지밖에 떠오르지 않는 이 시점에서 등록금 일부 환불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관계자분들과 교수님들이 노력하고 계신 부분들은 정말 잘 알지만, 학생들이 온전한 교육서비스를 제공받지는 못하는 상황이기에 등록금 일부 환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환불절차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나 안정해져 있나 모르겠지만 학생 권익보호를 위하여 외부기관에 문의도 해볼 생각입니다. 일정 %로(30%이상)모든 학생에게 환불하는 절차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벌써 중간고사때까지 반이상을 집에서 보냈습니다. 그에 따른 질 저하, 학교 시설비이용, 일부 행사 기회 제한, 월세 계약자에 대한 손해는 자신이 감당하는데 등록금까지 모르쇠한다면 정말 학생이 가져갈 리스크가 크다고 봅니다. 기숙사비용이라던지 학교시설에 대한 이용절차가 없었을 경우 일정금액 환불이 이루어진다는 가정하에 사이버수업을 들었다는 가정하에 질 저하에 따른 일정% 환불해주는 절차가 당연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 등록금 일부 환불에 대한 신한대학교 학우분들의 의견입니다.

대학 본부는 이를 검토하여 학생들의 요구를 들어주시길 바랍니다.